

지구촌 양계뉴스



영국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인체 위협 없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인체에 살기 위해서는 코 속 환경이 너무 차가워 인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15일 레딩대학 연구팀이 'PLoS Pathogens' 저널에 밝힌 연구결과에 의하면 32℃ 환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전염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의 장속보다 따뜻한 40℃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밝히며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려면 32℃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변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추가해 인체 독감 바이러스를 변이시킨 결과 기존 인체내 잘 생존하던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32℃ 환경에서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새로운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섞여 새로운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인체

에 실제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 메디컬투데이



미국

가금류와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진단 도구

동물 질병의 발생은 축산인들에게 참혹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일부 질병은 인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국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보건실에서 만든 새로운 진단 도구는 수의사 및 축산인들이 가금류 질병을 보다 신속히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금 검사 및 진단에 관한 3시간짜리 사용설명 비디오 및 쌍방향 진단도구는 이 대학의 수의사들이 만들었으며 미 농무부와 교육지원 계약으로 자금이 지원되었다.

동물보건실의 책임자인 조디 코릭 박사는 "이는 가금진단의 속도, 정밀도 및 질병반응을 개선하는 독특한 다중매체 수단"이라며 "가금의학, 병원균, 공중보건 및 교육에 정통한 수의사들은 미국 및 해외에서 식품공급 및 공중보

건을 지키기 위한 단일 목표로 서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 자원은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보건실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는 현장에서 노트북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3장의 DVD로도 이용 가능하다.

세계적인 식품공급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농무부는 이 같은 교육 자료를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의 많은 개발도상국에 배포하고 있다.

- WorldPoultry.net

인도네시아

AI에 강한 인도네시아 닭 유전자

인도네시아 자생종 닭의 최소 62%는 자체 MX유전자 덕분에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강하다고 인도네시아과학재단(LIPD)이 최근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자바 서부 보고르의 시비농 과학센터에서 있었던 생물연구보고회에서 재단의 회장인 우마 앙가라 제니는 “유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생종 닭들은 AI에 면역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생종 닭의 유전자를 연구한 재단의 생물연구센터의 유전학자인 스리 수란다리는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와 백신접종에 관해 주목하는 최초의 유전자 연구를 수행했다고 했다.

또 “아무도 어떻게 닭이 AI에 대해 천부적인 저항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유전적 측면을 살펴보지 않았다”며 “자생종 닭이 조류인플루엔자에 저항하는 능력은 그들 자신의 항바이러스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근 자료에서 MX유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닭의 저항력 또는 감염가능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리는 변화한 인도네시아 자생종 닭의 수에 MX유전자 관련정보 및 각각의 닭의 종류가 얼마나 AI에 저항력이 강한가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했다. 또 특정지역에 AI가 전염되더라도 단지 자생종 닭을 발체해내는 것은 MX유전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잃을 수 있다고 이어서 말했다.

다양한 종의 1,872마리의 자생종 닭에서 추출한 표본을 근간으로 재단은 짙은 색 세마니 닭이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가장 강하고 그린 포레스트 닭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평가했다.

- 자카르타 포스트

중국

'슈퍼 달걀' 출현... 일반 달걀의 3배

중국 산둥성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닭이 갑



자기 일반 달걀의 3배에 달하는 '슈퍼 달걀'을 낳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8마리의 닭을 기르고 있는 산둥성의 푸바오위 할아버지는

지난 5월 17일 여느 닭들처럼 평범하던 닭 한 마리가 갑자기 거대한 달걀을 낳은 것을 발견하고 신기해 했다.

일반 닭들이 보통 50g 정도 크기의 알을 낳는데 반해, 이날 푸바오위 할아버지가 기르는 닭은 무려 182g, 보통 크기의 3배에 달하는 거대 달걀을 낳았다.

앞서 지난해 4월 지린성에서도 평범한 닭이 갑자기 190g의 대형 달걀을 낳아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 노컷뉴스

AI 발생으로 철새 120마리 폐사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철새 12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중국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농업부가 지난 5월 8일 칭하이성 하이난주 경가하이에서 죽은 철새들

을 정밀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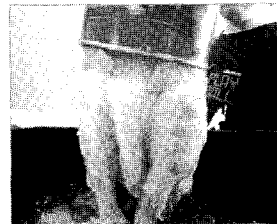
지금까지 경가하이 일대에서 폐사한 철새는 120여 마리로 중국 방역당국은 즉각 이 일대를 봉쇄하고 주변 농가들의 가금류 600여 마리를 폐사시키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나섰다.

칭하이성은 그러나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가 AI에 감염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뉴스스

독일

닭 한마리가 통째로 '캔' 속에~



우리나라에 닭 가슴살 캔이 있다면, 독일에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캔 속에 든 제품이 있다.

독일에서 햄버거를 캔 속에 넣어 판매한 제품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캔 속에 넣은 제품 사진이 공개돼 해외 누리꾼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 제품은 닭이 통째로 요리까지 된 상태로 캔 속에 들어 있어 간단하게 데워먹기만 하면 된다.

- 노컷뉴스